

100년 기업 하이트진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



하이트진로 주류 제품

하이트진로가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은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착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우리 사회에 조화를 이루어 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2012년부터 사회공헌활동을 해왔다. 100년 기업을 향해 가고 있는 하이트진로가 사회 각 분야의 구성원들을 응원하는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다.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원 나서

하이트진로는 폭우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들과 피해복구에 참여하는 봉사자들을 위해 진로 석수 2만병을 지원했다. 8월 7일에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충청북도 단양군과 전국수해복구 지역에 순차적으로 생수를 지원했다. 사회공헌을 주관하는 류준형 상무는 "도움이 절실한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해 긴급 지원을 결정했고 추후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

라며 "수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 나서

하이트진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각 분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지원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자가격리자, 의료진, 취약계층 등을 위한 마스크 20만 개, 손 세정제 6만개, 생수와 블랙보리 총 3만9천병을 포함해 예방과 피해 복구를 위한 현금 등 총 12억원을 지원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돕고자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하이트진로가 소유해 소상공인에 임대 중인 서울, 부산, 강원, 전주 지역의 17개소에 대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준 바 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지역 사회뿐 아니라 어



청년들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남 창원시에 오픈한 베이커리 카페 빵그레

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다"며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하루빨리 극복해 모두가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름철 폭염 대비 쪽방촌 생수 지원

하이트진로는 서울시와 주거취약계층 한파, 폭염 대응 보호 활동에 대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해 2013년부터 올해까지 8년째 물품과 구호 서비스 지원을 진행해오고 있다. 올해는 여름철 무더위를 대비해 노숙인과 쪽방촌 거주민들에게 생수 4만1천여병을 전달했다.

청년들의 미래를 응원한다

하이트진로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도전 의식을 높이고 청년 창업을 육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교육 및 장학사업에도 적극적이다.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오픈한 베이커리 카페 '빵그레'가 8월 26일 100일을 맞이했다.

'빵그레'는 저소득 청년들의 자립과 꿈 실현을 돕기 위해 하이트진로가 공공기관과 함께 기획한 첫 번째 프로젝트다. 이번 프로젝트는 창원 지역 내 저소득 청년들에게 제빵과 바리스타 관련 기술을 교육하고 일정 기간 직접 카페를 운영하며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목표다.

경남 창원시 빵그레 1호점의 성공적인 청년 자립을 바탕으로 하이트진로는 빵그레를 청년 창업지원 모델로 강화할 계획이다. 빵그레 개점 이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2호점 제의가 쇄도했으며,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 중이다.

김인규 사장은 "하이트진로가 청년 창업 지원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빵그레'와 같은 사업을 정례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진심을 다하는 사회공헌이라는 기업의 경영 가치를 실천하고 100년 역사를 가진 주류기업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⑤